

‘새 교황 선출’ 콘클라베 개막

“‘흰 연기’ 이틀이면 충분할 것”

〈새 교황 탄생했다는 뜻〉

5개 대륙 70개국 추기경 133명 비밀회의
네 차례 투표…3분의 2 이상 얻으면 선출

가톨릭의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가 7일(현지시간)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막을 올린다.

투표권은 교황의 직위를 뜻하는 ‘사도좌’(sede)가 공석이 되기 전날 기준 만 80세 미만인 추기경들에게 주어진다. 이번 콘클라베에는 5개 대륙 70개국에서 추기경 133명이 참여한다.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된 뒤 12년 만에 열리는 이번 콘클라베는 전쟁과 기후 위기, 이민자, 극우 정치의 도래 등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가톨릭이 어떤 방향성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흰 연기’가 나올 때까지…철통 보안 속에 투표= 콘클라베는 추기경 선거인단의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된다.

첫날에는 오후 4시30분에 한 번 투표를 진행한다. 이후엔 매일 오전과 오후에 두 번씩, 최대 네 번 투표를 이뤄진다.

투표 결과는 시스티나 성당 지붕에 설치된 굴뚝의 연기 색깔을 통해 알 수 있다. 검은 연기가 나오면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어서 교황 선출이 불발됐다는 뜻이고, 흰 연기가 올라오면 새 교황이 탄생했다는 뜻이다.

새 교황이 선출되면 추기경단 단장이 당선자에게 수락 여부와 새 교황명을 묻는다. 이어 선거인단 수석 추기경이 성 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쳐 전 세계에 새 교황의 탄생을 알린다. 이후 새 교황이 대중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전 세계인에게 첫 사도적 축복인 ‘우르비 에트 오르비’(Urbi et Orbi·라틴어로 ‘모마와 전 세계에’라는 뜻)를 내린다.

추기경들은 콘클라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영구적으로 비밀에 부친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추기경들은 개인 휴대전화를 모두 밖에 두고 콘클라베에 들어가야 하며, 전화와 인터넷, 신문 열람 등 외부와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교황청은 콘클라베의 첫 투표를 진행하기 1시간 반 전부터 바티칸 시국 내의 휴대전화 통신 신호 송출 시스템을 비활성화하기로 하는 등 보안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스티나 성당에는 도청·녹음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정밀 수색이 진행됐다. 드론과 위성을 통해 투표장을 촬영할 수 없도록 교황청은 성당의 모든 창문에 불투명 필름을 붙였다.

◇ 개혁과 전통 사이…교회의 새로운 방향은 = 추기경 선거인단 133명은 이를 전까지 모두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고, 전날 바티칸 내 숙소로 입소했다.

콘클라베 기간에 추기경 선거인단은 버스를 타고 시스티나 성당으로 출근해 교황 선출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약 80%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임명한 인사들이다. 이에 따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신의 개혁 노선을 이어갈 후계 구도를 탄탄히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뽑았다고 해서 모두 개혁 성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보수 성향의 추기경들은 이번 콘클라베를 교회의 전통적 가치를 회복할 기회로 보고 있다.

지난 2주간 전 세계에서 온 추기경들은 거의 매일 추기경 총회를 열어 가톨릭교회가 직면한 과제와 새 교황에게 필요한 자질을 논의했다.

신임교황 선출 '콘클라베' 개막



추기경들은 이 총회에서 ‘3분 발언’을 통해 각자의 비전과 교황상을 공유한다. 공식적인 후보 등록도 없고 선거 유세도 금지된 상황에서 이 ‘3분 발언’이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3년 콘클라베에서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지 않았던 프란치스코 교황도 심금을 울리는 ‘3분 발언’을 통해 추기경단의 시선을 끌며 반전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오래 걸리지는 않을 듯 =알제리의 장 폴 베스코 추기경은 콘클라베에 대해 “이틀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서로 처음 보는 추기경들이 많아 사실 좀 걱정이 됐지만 조금씩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알게 됐다”면서 “그래서 흰 연기(교황 선출을 외부로 알리는 수단)를 보기까지는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며 “이틀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콘클라베 추기경 선거인단 규모는 물론 참여국 수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문제는 일단 서로 상대를 모르는 추기경들이 많다는 점이다. 추기경 선거인단 중 20명은 지난해 12월에 추기경이 됐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때문에 바티칸을 찾기 전까지 서로 만난 적이 없다.

추기경 선거인단은 그 속에서 새 교황이 어떤 인물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윤곽을 서서히 그릴 것으로 알려졌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이에 대해 “새 교황은 세계 질서의 위기 속에서 길을 잃은 인류가 진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까이 있고, 다리 역할을 하며, 인도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까운 목자가 되어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무자파라바드 인근에서 파키스탄군이 인도 미사일 공격으로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건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인도-파키스탄 충돌 격화…전면전 우려

미사일 교전에 민간인 다수 사망

핵 공격 가능성도 언급 ‘일촉즉발’

인도와 파키스탄이 7일(현지시간)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는 등 양국 간 충돌이 격화해 민간인 다수가 사망했다.

70년 넘게 양국 관계로 갈등을 빚은 ‘사실상 핵보유국’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이 향후 전면전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쟁지인 카슈미르 총기 테러 사건 여파로 무력 충돌하면서 민간인 다수가 사망했다.

7일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군은 파키스탄군이 사실상 국경선인 실질통제선(LoC) 너머 인도령 잠무-카슈미르 접경 지역에 포격을 가해 민간인 3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파키스탄도 모스크에 미사일이 떨어져 아동 등 민간인 1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양국간의 추가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도군이 파키스탄에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과 비교해 이번 사건이 전인지 후인지는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이날 새벽 인도군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내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기반 시설 등 9곳을 공격하는 ‘신두르 작전’을 개시했다.

파키스탄 당국은 이 영향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8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으며 2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

파키스탄군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파키스탄군이 인도 전투기 5기를 격추했지만, 파키스탄 전투기 등은 격추되지 않았으며 LoC 곳곳에서 교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달 22일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휴양지 파할갑 인근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총기 테러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뒤 일촉즉발 긴장을 이어왔다.

전날에는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인더스강 지류 강물을 차단했고, 이에 파키스탄은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핵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이다.

다만 양국간 대규모 전면전 확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시각이다.

두 나라가 모두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점은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이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확전을 막는 ‘심리적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합뉴스

한국 ‘삶의 질’ 또 떨어졌다…세계 20위

한국의 삶의 질이 지난해보다 한단계 하락했다. 유엔 산하 유엔개발계획(UNDP)이 각국 주민의 삶의 질을 평가한 ‘인간개발지수’(HDI) 순위에서 한국이 세계 20위를 기록한 것이다.

UNDP가 6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인간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HDI는 2023년 기준 0.937로 집계돼 조사 대상 193개 국가 및 지역 가운데 20위로 평가됐다

전년도(0.928·19위)보다 수치상으로는 개선됐지만 순위는 내려간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HDI는 1990년까지만 해도 0.738로 평가됐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 2010년과 2012년 12위

를 기록하는 등 최근에는 줄곧 최상위 국가군에 포함돼 왔다.

한국의 2023년 기준 기대수명은 84.33년, 기대교육연수와 평균교육연수는 각각 16.62년과 12.72년이었다. 1인당 GNI는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4만9726달러로 평가됐다.

HDI 순위 1위는 아이슬란드였다. 2023년 기준 인간개발지수 0.972를 기록한 아이슬란드의 기대수명은 한국보다 1.64년 짧았지만, 기대교육연수와 평균교육연수는 2.23년과 1.19년이 더 길고 1인당 국민소득은 6만9117달러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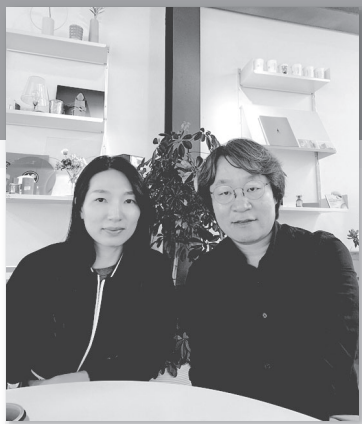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